<터치-필리: 서울>

“우리 모두가 단절되고 스스로 상품화될 것을 강요받는 지금, 신체적 접촉을 예술적 실천으로서 공유하는 것이 정치적 저항의 형태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터치-필리: 서울 Touchy-Feely: Seoul
참여자: 구민자, 김현주+조광희, 나타샤 톤티, 메리 멜러, 멜라니 보나요, 멜리사 스텍바우어, 수자나 밀레스카, 아나 니키토비치, 요이, 이주영, 임연진
기획: 바루흐 고틀립, 양지윤
기간: 2025년 6월 13일(금) - 8월 9일(토)
장소: 대안공간 루프
주최: 사운드 아트 코리아
협력: 웨스트 덴 하그
후원: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서울문화재단 2025년 예술창작활동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

2. 프로젝트 소개

돌봄 노동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여성이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 무급 노동으로 구분된다. 아이나 남편, 노인을 돌보는 행위, 청소와 요리 같은 재생산 노동인 돌봄 노동은 가정주부인 여성의 일로 성적 대상화되어 산업화와 함께 개발되었다. 세계화 이후 이는 글로벌 사우스의 이주 여성이 글로벌 노스의 부르주아 가정을 돌보거나, 가난한 여성이 부유한 여성을 돌보는 상품으로 재편되었다. 재생산 노동 없이는 어떠한 생산 노동도 불가능하지만, 이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착취하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돌봄 노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요구된다. 돌봄을 받는 이의 필요와 선호를 이해하기 위해선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에서 주요한 감각은 촉각이다. 돌봄 노동을 통한 체화된 경험을 기반으로 ≪터치-필리≫는 촉감, 만지기 같은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을 페미니즘적 큐레이팅과 연결 짓는다. 필라테스, 마사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산업에서 활동하며 예술적 실천을 이어가는 이들과, 저마다의 방식으로 돌봄 노동과 촉각적 경험에 관한 예술 실천을 진행 중인 이들이 참여자와 함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나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8월 양지윤과 바루흐 고틀립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웨스트 덴 하그에서 기획한 에코페미니즘 썸머스쿨로 시작되었다. 썸머스쿨 기간인 일주일은 스무 명의 참여자가 매일 다른 강연자의 가이드에 따라 서로를 만지고 수많은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신체적 접촉, 성 노동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페미니스트 간의 입장 차이, 신체적 접촉을 예술 실천으로 수행할 때 현대 예술 기관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 대한 실험이기도 했다. 다양한 충돌과 치유의 과정이었고 일주일 후 참여자의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친밀함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하에, 실은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한 국가로 변신한 신자유주의 체제는 복지국가의 붕괴를 가져왔다. 현대 예술가들은 공동체 예술이나 사회 참여 예술 같은 형태로 국가의 돌봄 밖에 놓인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공적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이러한 예술 활동은, 역설적으로 주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 사회적 필요를 일시적으로 메울 뿐이다.

≪터치-필리: 서울≫은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현대 예술의 한계와 불안정한 제도적 상태를 반영하며, 미술 체제에서 '좋은 예술'이라고 평하는 기준을 어지럽힌다. 신체적 접촉을 예술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는 욕망과 두려움, 혐오감과 호기심, 그리고 많은 학습된 금기와 문화적 억압과 맞서는 일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접촉의 문화가 갖는 각기 다른 가능성과 한계를 기반으로, ≪터치-필리: 서울≫는 생산 노동과는 거리를 둔 촉각적 경험을 참여자와 예술가가 함께 나누는 일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달이라는 전시 기간 동안 워크샵, 스크리닝,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고정되고 완성된 견고한 예술이 아닌, 함께 참여하여 변화하는 유연한 예술 실천을 공유한다. 이는 해조류로 천을 염색하고 음식에 대한 사적 경험을 흙에 새기며 서로의 신체를 일상의 사물로 만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우리 모두가 단절되고 스스로 상품화될 것을 강요받는 지금, 신체적 접촉을 예술적 실천으로 공유하는 것이 정치적 저항의 형태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양지윤, 바루흐 고틀립

3. 큐레토리얼 접근 방식

<터치-필리:서울>은 신체적 접촉 및 촉각이라는 주제가 오늘 날 한국의 상황과 어떻게 공명하는지 탐구하기 위해, 이를 소개하는 워밍업 이벤트와 행동 규칙 워크샵을 사전 개최하였다.

워밍업 이벤트

일시: 2025년 4월 19일(토), 14:00–16:00

웨스트 덴 하그에서 처음으로 기획되었던 <터치-필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적 상황에 대한 감수성과 고려해야 할 점들에 관해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행동규칙 만들기 워크샵

일시: 2025년 5월 31일(토), 14:00–16:00

신체적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실천안에서 모든 참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행동하고, 토론하며, 결정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의 행동 규칙을 구성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2인, 4인, 8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토론을 순차적으로 거친 뒤, 각 그룹의 논의 내용을 전체와 공유하며 행동 규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워크샵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추후 정리되어 <터치-필리: 서울>을 위한 새로운 행동 규칙의 형태로 발전될 예정이다.

4. 행사 일정

***퍼포먼스 및 워크샵 진행시 전시 관람은 제한됩니다.**

전시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 8월 9일(토) AM10:00~PM7:00

프레스 이벤트

일시: 6월 12일(금) 오전 11시

오프닝 워크샵 #1: 흙에 음식 새겨넣기

구민자

일시: 6월 12일(금) 오후 4시

설명: 음식에 대한 사적 경험을 흙으로 새겨넣는 참여형 퍼포먼스

오프닝 워크샵 #2: 크리스탈 힐링 퍼포먼스

임연진

일시: 6월 12일(금) 오후 5시

설명: 잠시 멈추어 쉬고,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감각적 몰입 공간이자 체화된 설치 퍼포먼스. 참여자는 조용히

보호받는 공간 안에 앉거나 누워 있을 수 있으며, 빛과 의도된 촉각, 대화를 통해 정체된 에너지를 풀고, 차크라를 조율하며 몸 안으로 깊은 휴식을 초대하는 경험을 안내받는다.

센소리엄

멜리사 스텍바우어

일시: 6월 15일(일) 오후 2시, 6월 20일(금), 6월 21일(토), 6월 28일(토) 7월 1일 (화) 오후 2시 - 6시

촉각, 주의, 감각적 연결을 통해 공동체적 친밀감과 자율성을 탐색하는 참여형 워크숍. 일상적 사물을 매개로 한 촉각적이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과 경계, 접촉의 섬세한 역학을 탐구한다. 각 세션은 각 참가자들의 욕구와 흐름에 따라 구성되며, 온도, 향, 소리, 몸짓을 통한 감각적 참여의 영역을 확장한다.

*6월 20일, 6월 28일자 워크샵은 여성으로 정체화한 을 위한 세션으로 운영된다.

몸을 사랑하기 — 움직임에서 명상으로

임연진

일시: 6월 17일(화) 저녁 6시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다시 연결하는 참여형 워크샵. 외형에 초점을 맞춘 사회에서, 이 워크숍은 느림, 감각, 자기 사랑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을 꿰매기 — 회복의 의식

임연진

일시: 6월 18일(수), 6월 19일(목) 오후 4시

각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적 혹은 에너지적으로 닳은 상태를 상징하는, 수선이 필요한 소중한 의류를 지참하며—풀린 단, 떨어진 단추, 찢어진 천 등—이를 함께 꿰매는 워크샵.

몸의 주기 - 첫 생리부터 폐경까지

임연진

일시: 6월 22일(일) 오후 2시

생리를 시작했거나, 주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경에 접어드는 이들 처럼 호르몬 전환기에 있는 여성을 위한 워크샵. 가벼운 스트레칭 및 명상과 함께, 세대 간 대화를 통해 수치심과 불편함, 회복탄력성을 준중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브 돈 무브 Move Don’t Move

아나 니키토비치

일시: 6월 27일(금) 오후 5시, 6월 29일(일) 오후 2시

설명: 소매틱 실천, 해부학적 통찰, 비디오 콜라주를 엮어 ‘움직임’과 ‘감각’, ‘관계 맺기’를 탐구하는 참여형 워크샵. 미세한 움직임과 공유된 신체 언어를 통해 참여자들은 신체 감각을 예술적 표현이자 존재 방식으로 확장한다.

해조류 염색 워크샵: (미래를 위한) 태도를 물들이기

이주영

일시: 7월 5일(토) 오후 2시

설명: 해조류와 미세조류를 바탕으로, 이들의 색감을 염료와 염색으로 풀어내어 보는 워크샵. 이에 사용되는 섬유는 자연에서 생분해/퇴비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운드테이블 토론 on 메리 멜러

일시: 2025년 7월 12일(토) 오후 2시

에코페미니즘 이론가 메리 멜러의 온라인 강연을 기반으로 돌봄 노동, 경제 정의, 페미니스트 저항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

온라인 라운드 테이블 with 수자나 밀레프스카

일시: 2025년 7월 11일(토)

설명: 미술 이론가 수자나 밀레프스카와의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교차성, 친밀성의 정치, 탈식민적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예술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워크샵: 물숨 오케스트라, Act 4: 공명하는 몸들

요이

일시: 2025년 7월 25일(금) 저녁 6시

설명: 숨을 기억, 노동, 아카이브로 탐구하는 다감각적인 워크샵. 구술 전승, 체화된 워크숍,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구성된다. 이는 해녀들의 체화된 서사를 기억하고 다시 연결하며 아카이빙하려는 요이의 지속적인 시도 중 하나다. 공동의 호흡을 통해 감응하고 세계를 다시 구성하는 장을 마련한다.

워크샵: 김현주, 조광희

일시: 2025년 7월 26일 (토) 오후 2시

북토크: 바루흐 고틀립, 『가장 인간적인 조건』

바루흐 고틀립

일시: 2025년 8월 1일(금) 저녁 6시

설명:『Most Human Condition』에서 논의되는 물질성, 친족성, 탈인간 친밀감 등의 개념을 다루는 북토크.

큐레이터 토크 / 클로징 이벤트

일시: 2025년 8월 9일(토) 오후 2시

설명: 프로젝트의 기획, 발단 과정과 성과를 돌아보는 큐레이터 토크. 이후 소규모 클로징 모임이 이어진다.

5. 참여 작가 소개 및 작품 이미지

멜라니 보나요 Melanie Bonajo

멜라니 보나요는 네덜란드 기반의 예술가, 영화감독이자 사회운동가로, 비디오, 퍼포먼스, 사진, 설치 작업을 통해 자본 및 기술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친밀감의 붕괴와 고립의 문제를 다룬다. 기술 발전과 소비주의적 쾌락이 개인의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소외를 심화시키는 방식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감각적 연결과 정서적 친밀성을 회복하는 비자본주의적 실천 방식을 제안한다. 보나요의 실험 다큐멘터리는 주로 법적·사회적 주변부에 놓인 이들—예컨대 제도 밖에서 살아가거나 일하는 공동체—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성, 감정, 친밀함, 신체 정치(body politic)과 같은 주제를 재탐색하며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한다. 2022년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네덜란드 대표로 선정되어 《When the Body Says Yes》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멜라니 보나요, 터치미텔, 2019, 싱글채널 비디오,24분 27초

멜리사 스텍바우어 Melissa Steckbauer

멜리사 스텍바우어는 베를린 기반의 예술가로, 공동 예술가 네트워크 ff의 일원이자 베를린 기반의 전시 공간 The Wand의 창립 디렉터로서 활동해왔다. 그의 작업은 주로 주변 인물들의 신체, 목소리, 그리고 (마치 씨앗과 같은 가능성을 지닌) 관계를 매개로 하지만, 직접적인 친밀감보다는 심리적이고, 때로는 침묵적이며, 육체적인 방식의 나눔(sharing)을 탐구한다. 스텍바우어는 전시 공간을 감각적 놀이터, 천체적 공간이자 비밀스러운 마녀의 오두막 같은 공간으로 전환하여 감각성(sensuality)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며, 관객이 감각을 통해 자신과 타자에 대해 사유하게끔 유도하는 참여형 워크샵을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종이 매체의 복합성과 감각성을 실험해왔으며, 그의 회화는 욕망의 서사와 재현 방식을 성찰하고 신체의 범주화, 성적 대상화, 성애화에 의문을 던진다. 그는 이를 사회 권력 구조를 시각화하고, 지배적인 규범에 의문을 던지며, 이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삼는다. 최근 전시로는 베를린의 갈레리 임 투름에서 열린 개인전 《The Sonancy of Falling and Standing Repeatedly》(2018, 기획: Sylvia Sadzinski)가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Wo*man*kind》(2025, 리스본 Kindred Spirit, 기획: Stephan Klee of Frontviews), 《Pornotopia Revised》(2022, 비엔나 Kunsthalle Exnergasse, 기획: Sarah Held, Sylvia Sadzinski) 등이 있다.

(좌) Tools of The Sensorium, The Sensorium Institute, 2019, (우) 무제, 2025, 종이에 아크릴, 23cm x 30.5cm

나타샤 톤티Natasha Tont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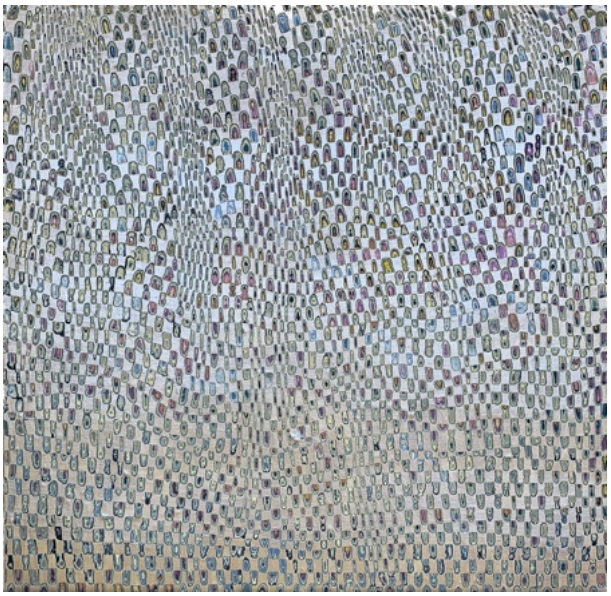
나타샤 톤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욕야카르타를 오가며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그녀의 예술적 실천은 주로 '가공된 공포심'을 둘러싼 역사와 신화의 허구적 서사를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주류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소외된 존재들의 미묘하고 개인적인 투쟁 속에서 비롯된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근 전시로는 런던 오토 이탈리아에서 열린 개인전 《불꽃 속의 정원》(2022)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과 상영으로는 제34회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 제57회 칼로비바리 국제 영화제(2023), 싱가포르 비엔날레(2022), 네덜란드 스트룸 덴 헤이그(2022), 《GHOST:2565》(방콕, 태국, 2022), 《Protozone8 Queer Trust》(취리히, 스위스, 2022), 아르코미술관(서울, 2022), 리움미술관(서울, 2022),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베를린, 2021), 트랜스미디알레(베를린, 2021) 등이 있다. 2020년에는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와 슈투트가르트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해시상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교 융에아카데미의 휴먼머신 펠로우로 활동했다.

나타샤 톤티, 불꽃 속의 정원, 싱글채널 비디오, 28분, 2022.

임연진 Jean RIM

임연진은 뉴욕과 브루클린 기반의 시각예술 작가이자 공인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현존감, 움직임, 그리고 의식적인 접촉을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명상, 바디워크, 예술 활동, 커뮤니티 의식 등의 다양한 실천에서

출발하는 그의 워크샵은 부드럽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체화된 인식, 감정의 해방, 그리고 창조적 전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한다. 또한 그는 시각예술가로서 고대의 조각 기법을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작품을 제작한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시각을 결합하여, 달의 변화, 계절의 흐름과 같은 자연의 순환에서 영감을 얻어 깊은 명상적 상태와 영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펼친다.



임연진, Marking the Infinite, 2024, 나무에 에나멜 페인트 및 컬러 시프트 안료, 50.8cm × 50.8cm

김현주x조광희

김현주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사회론적 질문과 함께 상실되거나 파편적으로 편재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땅의 풍경에 주목한다. 그녀는 특정 지역 또는 사건에 속한 개개인을 호명하며 구술을 기반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지평을 확장해냄으로써 잊히거나 뒤엉킨 삶으로부터 방치된 또 다른 삶의 목소리들을 불러 세운다. 2019년부터 미술작가 조광희와 함께 의정부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함께 형성된 정착촌 빼뻘에서 <빼뻘-주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방치되어 있던 미군전용 클럽을 예술거점화하여 '대화하기, 먹기, 걷기, 청소하기, 소소한 놀이' 등의 일상을 예술활동으로 확장하여 주민과 예술가 간의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거품, 소음, 웅성거림 - since 1986 my sister's place 'Durebang', ㅃㅃ보관소 외 2개 공간, 2024>, <궤적을 연결하는 점들_경기예술창자지원 '생생화화', 고양시립아람미술관, 2024>, <일시적 개입, 아르코미술관, 2022>, <따스한 재생,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요이Yo-E Ryou

하이드로 페미니스트의 시선에서 물과 여성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간의 사회 구조에서 발화되지 못했던,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어 엮는 '여성적 글쓰기'를 실험한다.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쿠퍼 휴잇 디자인 미술관, 뉴욕 주립 대학교, 런던 예술대학교, 네덜란드 캐스코, 한국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협업과 강의를 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공공 예술과 커뮤니티 예술 프로젝트들로 이어져, 예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프로젝트 <그녀에게서 온 일흔 네 통의 편지 Seventy-four letters from her>를 기점으로 한 여성의 정체성을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기반한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며, 개인의 위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정치, 생태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질문하는 작업을 만들며 작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안적인 방법의 예술활동을 모색하며 최근 성평등 동화책 시리즈를 공저하기도 했다. 예술 작업에 기반한 리서치, 리서치에 기반한 예술 작업을 통해, 예술가,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활동을 균형 있게 이어가고 있다.

구민자

구민자는 노동, 시간, 사랑 등 모든 인간의 공통되고 근원적인 경험과 관련된 관념들에 관한 퍼포먼스와 영상 작품에 전념해왔다. 플라톤의 『향연』처럼 젊은이들이 밤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한국인의 시간 사용 통계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삶'을 퍼포먼스로 수행하고, 조리예에 나온 것처럼 결코 포장된 재료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요리를 정성껏 완성해내는 이 작업들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관념들을 낯설고 불편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홍익 대학교 회화과,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수학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했으며, 쌈지 스페이스, 앙가르(바르셀로나), 경기창작센터, ISCP(뉴욕) 등의 레지던시에 참가했다. <젊은 모색 2013> (국립현대미술관)에 선정되어 예술가의 일에 대한 가치 산출,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예술가 공무원 임용 규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주영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PGD & MA(비주얼아트)를 취득했고, 골드스미스 칼리지 어소시에이션 리서치 스튜던쉽 수료했다. 2024년 개인전 <RAL 7048 진주 마우스 회색>((투게더)(투게더))를 개최한 바 있으며, ' 서드 에임 인터내셔날 비엔날레 2009(마라케시 미술관, 마라케시), " De: Place, Re: Place, 모바일큐브/도시갤러리프로젝트 '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 유클리드 산책전 ' (서울시립미술관, 2007)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아나 니키토비치Ana Nikitović,

아나 니키토비치는 베오그라드,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큐레이터이자 필라테스 강사이다. 암스테르담 데 아펠 큐레이터 과정에 참여했으며, 베오그라드 현대 미술관, 유고슬라비아 영 아티스트 비엔날레 등에서 협력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오랜 시간 필라테스를 수련해 온 그녀는 하나의 신체를 갖고 있다는 인간의 조건 자체에 주목하고, 개인의 몸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움직임과 현존의 경험을 직조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와 더불어 예술가, 디자이너, 기획자 등 문화예술 종사자에 특화된 소매틱(somati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라테스를 넘어 PNF, 펠든크라이스, 알렉산더 테크닉, 로핑 등 다양한 신체 기법을 통합한 실험적 접근을 기반으로 신체와 정신의 깊은 연결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세션을 진행한다.

수자나 밀레스카 Suzana Milevska

수자나 밀레스카는 북마케도니아 스코페 출신의 미술사학자이자 시각 문화 이론가이다. 밀레스카의 연구와 이론적 관심사는 예술과 시각 문화에서 헤게모니적 권력의 재현 체제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판, 사진 이미지와 기관 또는 개인 아카이브에서 시각적 기억의 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예술을 통한 논쟁적 문화유산 전승Transmitting of Contentious Cultural Heritages through the Arts'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서 중동부 및 남동부 유럽 미술사 분야의 첫 번째 석좌 교수로 임명되었다.

메리 멜러Mary Mellor

메리 멜러는 노섬브리아 대학교 명예 교수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연구소의 창립 의장을 역임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환경주의 관점을 통합한 대안 경제에 관해 폭넓게 저술했다. 또한, 세계경제학회의 창립 멤버이며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페미니즘과 생태학(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화폐의 미래: 금융 위기에서 공공 자원으로(Pluto Press, 2010)』, 『부채 또는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정의를 위한 공공 자금(Pluto Press, 2015)』 등이 있다.